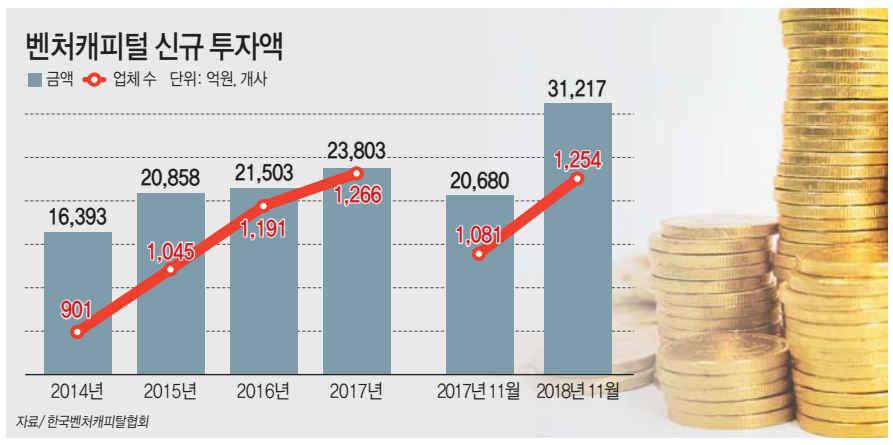
신규투자 3兆 시대 열었는데… 벤처캐피탈, 주가는 고전

신규 투자액 전년동기比 51% 증가
주가 하락에 IPO 앞두고 상장 주저



지난해 벤처캐피털(VC)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000억원을 웃도는 대형펀드도 대거 등장하면서 벤처투자 활황기를 이어갔다.

반면 주식시장에서 VC 종목은 찬밥신세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VC들은 제값을 받지 못할 우려로 상장을 주저하고 있다.

17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VC의 신규 투자액은 3조1217억원으로 전년동기(2조680억원)보다 51.0% 증가했다. 12월 실적까지 반영하면 지난해 VC들의 신규 투자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000억원을 웃도는 대형펀드는 14개가 결성됐다. 연 평균 3개 정도 결성되던 예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다. 14개 펀드의 결성총액 규모만 2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벤처투자가 활황이었다는 방증이다.

VC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벤처 정책과 민간제안 펀드 도입 등으로 민간 출자로 결성된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8300억원을 모태펀드 출자예산으로 배정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4500억원을 배정했다. 펀드 기간이 최소 5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VC 업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상황과 달리 지난해 상장한 VC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소속 기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해 27배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된 SV인베스트먼트는 현재 공모가(7000원)를 44% 이상 하회하고 있다. 또 국내 4위권의 대형 VC인 아주IB투자 주가 역시 공모가(1500원)를 30% 가량 밑돌고 있다. 린드먼아시아(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 수익률 -20.7%), 나우아이비캐피탈(〃 48.6%)도 부진하다.

이 때문에 올해 상장을 계획하고 있던 VC들이 상장을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상장된 VC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제 값을 받기도 어렵다. 실제 아주IB투자의 주가수익비율(PER)은 7배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국거래소(KRX)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사이 코스닥 시장에서 승인을 받고 상장을 준비 중인 VC는 총 3곳(케이티비네트워크, 네오플럭스, 미래에셋벤처투자)이다.

하지만 이들 중 단 한곳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투자 설명회와 수요예측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상장 절차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 증권사 IB 담당자는 "VC들의 실적 개선세는 뚜렷하지만 앞서 상장한 VC들이 주식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상장 절차를 미루고 있다"면서 "상장 승인 후 6개월 안에 상장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2분기 쯤 VC들의 상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기관서 주식 빌려 개인 공매도 활성화"

증권금융 기자간담회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

접근성 개선 위한 대주 재원 확충
대출 늘리고 단기자금 지원 확대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올해 증권사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개인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주 종목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증권금융 기자간담회에서 정완규 사장은 "자본시장 지원 기능은 증권금융 기본 책무 중 하나"라며 "공매도 거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주 재원을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기준 120억원에 불과한 대주잔고를 920억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공매도 가능 종목수는 134종목에서 248종목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정 사장은 "종목수는 대주 이용 상황을 감안해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사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할인어음, 일중자금거래 등 단기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국내외 경기 둔화가 시작됨에 따라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증권사에 대한 대출 규모는 11조4749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2조 35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에만 편중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일물RP거래를 확대한다. 지난해 6조588억원 거래규모를 올해 6조2000억원까지 늘린다.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나간다.

지난 2017년 하반기 개시한 우리사주 플랫폼 가입 조합 수는 2017년 99개에서 지난해 149개로 50% 이상 늘어났다.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우리사주 배당조회, 우리사주예탁·인출 등 서비스를 강화한 덕분이다.

정 사장은 "우리사주 플랫폼은 조합의 업무간소화와 비용절감 효과와 조합원간 정보의 비대칭 해소, 사전적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 증권금융회사와 업무 협력을 지속하고 증권금융제도 미도입 국가에는 한국형 증권금융제도 확산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증권사에 대한 외화대출 확대도 계획 중 하나다. 증권금융의 국제 신용등급은 AAA로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하다. 때문에 외화 조달에 있어 증권사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펀드온라인코리아 플랫폼 개편도 연내 마무리한다. 증권금융은 지난해 온라인 펀드 판매 플랫폼인 '펀드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펀드온라인코리아를 인수했다.

정 사장은 "펀드판매시장이 '핀테크 기반의 온라인 중심 패러다임'에 본격 진입할 수 있도록 펀드온라인코리아를 키우겠다"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가 쉽게 접근해 자신에게 꼭 맞는 펀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펀드정보 및 고객 정보를 이용해 고객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을 새롭게 개편하는 한편, 핀테크 분야의 혁신성장기업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 사장이 취임 때부터 "조직문화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유연근무제 확대, 연장근로 관리 강화 등 조직문화를 효율적이고 건실한 강소조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신입자원 채용규모도 전년보다 39% 증원해 청년일자리창출에 힘쓴다. 지난해 2명의 여성 부서장을 발탁 승진한 만큼 여성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대우건설, 푸르지오에 '책 나눔 서비스'

대우건설은 지난달부터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동탄역 푸르지오·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등 3개 단지에 '책 나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푸르지오 입주민들이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푸른도서관이 운영중인 인접한 단지 3곳을 선정해 신간도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 단지에 3개월간 100권의 책을 제공하며 3개월 후에 다른 단지로 책을 옮긴다. 푸르지오 한 단지가 9개월 동안 총 300권의 신간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간도서는 기존 푸른도서관에 비치되지 않은 도서로 소설·비소설·경제·요리·아동 등 다양한 장르로 선정된다.

순환제공이 끝난 책은 해당 서비스를 체험한 단지 중 입주민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우건설' '#푸르지오서비스' '#라이프프리미엄' '#책나눔서비스' '#단지명' 해시태그로 가장 많은 홍보글을 올린 단지에 기증하는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책 나눔 서비스'는 타 푸르지오 단지에도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대우건설 푸르지오는 '프리미엄이 일상이 되는 곳'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작년

푸르지오 라이프프리미엄 '책 나눔 서비스'./대우건설

라이프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편해 가드닝 클래스·펫티켓 수업·실버세대 건강강좌 등 여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책 나눔 서비스'도 라이프 프리미엄 서비스의 일환으로 입주민의 지적활동 도모와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채신화 기자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연합뉴스

개인회생 채무조정 때 주담대 포함 신용불량자 주택 경매 막는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해, 채권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주거 금융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 개인회생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되고,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회생자의 경우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하게 되면 주거를 상실할뿐더러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을 끝까지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복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회생으로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신복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인회생 기간(3~5년)에는 신용채무 변제액과 신복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환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담보 주택 경매는 금지된다.

다만 연계 채무조정자는 지난해부터 3년으로 축소했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개인회생자는 신용채무액만 상환해 신용채권자 회수금액에 영향이 없지만, 연계 채무조정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포함해 상환하기 때문에 신용채무액 변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최대 5년까지 변제기간을 연장해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희망하는 채무자는 먼저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실거주주택)이며, 주택담보대출 연체 발생후 30일이 경과된 자다.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진 채권은 거치기간 종료 후 5년이상 성실상환이 돼야 정상채권으로 분류됐다. 때문에 채권자는 다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될 때까지 고정 이하 채권을 보유하며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했다. 채권자의 상대적 불이익이 컸던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복위의 채무 조정 후 1년간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개정한다. /나유리 기자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자료=금융위원회

구분	채무조정 신청시 자산건전성 분류	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	
		현행	개선
연체 90일 이전	요주의	거치기간 (3년 or 5년) 後 6개월	1년
연체 90일 이후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거치기간 (3년 or 5년) 後 5년	1년